

# 한국 여대생의 성 정체감 내면화 과정

## The Internalization of the Gender Identity for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초빙교수 천혜정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Suwon  
Visiting Professor : Cheon, Hye jung

###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논의 |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여자 대학생의 성 정체감 내면화 과정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bout how they accept, resist, and interpret their gender identities and roles. The research data were autobiographic essays reflecting research participants' gender identities internalization process. Thirty essays were chosen, and carried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t turned out that most of these female students were not blessed their birth among their family members only because of their sexes. On the one hand, these female students were restricted their behaviors by their sexes in their daily lives such as responsibility on household work, not permitting drinking, late returning home, and sexual behavior before marriage. On the other hand, they sometimes took advantage of their sexes for self-rationalization. But they were proud of the fact that they will be mothers someday. It seemed that motherhood was center for their female identity.

**주제어(Key Words):** 여자 대학생 (female college students), 성 정체감 (gender identity), 성 정체감 내면화 과정 (internalization of gender identity)

---

Corresponding Author: Hye jung Che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Suwon, San 2-2, Wau-ri, Bongdam-up, Whasung-shi, Kyunggi-do, 445-743, Korea Tel: 82-31-229-8026 Fax: 82-2-534-1882  
E-mail: hjcheon@suwon.ac.kr

## I. 문제 제기

성 정체감(gender identity)은 인간의 자아 정체감의 핵심으로 자신의 성별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구분되며 사회문화적으로 학습하여 획득된 정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성별화된(gendered)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의식적 혹은 암묵적 압력을 받는다. 그 결과 각 개인은 자신을 성별과 관련하여 바라보고 규정하며 젠더를 행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Tavris, 1992).

이러한 성 정체감은 매일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인기 남녀의 자아 정체감 형성,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수립을 통한 발달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사회문화적 구성물로서 성역할 의식이나 가족 관계 규범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측면도 읽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조옥라·신경아, 2000). 특히 청소년기 후기 또는 성인기 초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감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미래 취업이나 결혼을 통해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갈등과 관계가 깊음을 고려해 볼 때, 남녀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정체감을 정립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 전통적인 가족 윤리가 해체된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 윤리를 형성해 가지 못하는 가족의 현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부장적 체제는 개인의 의식과 행동 사이에 커다란 격차를 조성하고 있다. 즉, 여성의 모성과 가족에의 헌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여성성 관념에 대해 독립적인 자아와 성취 욕구를 인식하는 여성들, 생계 부양의 부담으로 괴로워하는 남성들은 모두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자신이 지닌 개인적 의식이나 욕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성/남성성의 성역할 관념과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안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옥라·신경아, 2000).

지금까지 성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심미옥, 1991). 첫 번째 경향은 거시적 연구로서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왜 성 고정관념이 유지, 강화되는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자본주의나 가부장제를 비롯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제약을 비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Acker, 1983). 예를 들면, 윤택림(1996)은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을 분석하면서 자녀 중심의 핵가족 이데올로기, 성별 분업 및 남성의 가계 계승이라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자녀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고 있는 기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적 산업화의 맥락과 맞물려 한국적 모성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면서 주부를 가정과 가족의 테두리 속에 가두어놓고 그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게끔 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신현모양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여성이 보조 부양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도록 돕는 방법을 택하는데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연구나(이선옥, 1997),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 혹은 직업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음을 비판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박홍주, 1998).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사람들이 일상적 결정을 내리는 구체적 과정까지 파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경향은 미시적 접근으로서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서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규정된 기준이 유지, 강화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입장에서는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을 통해 성역할과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전수되는 방식을 강조한다(김원홍·이인숙·권희완, 1999; 윤진, 1981; 이영자, 2000; 한국여성개발원, 1993). 특히 가족학 영역에서는 미시적 접근을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 환경의 영향, 즉 부모와의 상호작용, 교사, 형제, 친구 등의 주변 인물, 가족 환경과 출생 순위에 따른 성별 특정한 행동 양상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다(박선영·정옥분, 1989; 이숙, 1986; 이선미·김경신,

1996; 이주옥, 1996). 그러나, 미시적 접근은 불평등의 영속화 현상을 심리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를 개별화할 위험이 있다.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거시적 접근은 물론이며, 사회화 과정을 강조한 미시적 접근 역시 인간을 외부 영향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율적 의지를 지닌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수동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기대되는 여러 가지 규범이나 역할들을 자신의 삶의 조건에서 판단한다. 즉, 아무런 갈등도 없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대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유형화하며 재구성해냄으로써 이를 다양한 삶의 가능성 속에서 변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자신의 성찰적 의지를 반영할 수 있다(Giddens, 1991).

한편, 여성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 이데올로기들은 일상 생활에서 여성에게 모순된 기대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학업성취와 사회적 성취를 기대함과 동시에 성역할에 따른 행동을 요구함으로써 사고와 행동 사이의 괴리를 보인다(Sampson, 1982). 또한 교사나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성취지향적일 것을 기대하면서도 순종적이고 조용한 여학생을 선호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Anyon, 1983).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여성의 모습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하고 있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거나 독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는 역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Kaplan & Sedney, 1980). 이렇게 여성에 대한 역할 기대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모순은 성역할의 여러 측면에 대한 여성들 스스로의 모순된 태도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Mason과 Bumpass(1974)는 미국의 여성들이 남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의 가사 활동을 지지하고 있으나 취업이나 임금 체계에서의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혜성(1989)은 여성들이 사회적 성역할에는 진보적이지만 가정에서의 성역할에서는 보수적임을 보고하였다. 결국, 개인의 성 정체

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외부의 영향력이 각 여성의 일상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성역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전수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기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들이 어떻게 자신의 성 정체감을 내면화하는지, 성 정체감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 정체감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여성의 성 정체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별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2002학년도 제 1학기에 '결혼과 가족'을 수강한 학생 120명 중 여자 대학생 70명이 참가하였다. 이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감과 성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사건이나 경험 등을 서술하게 하였으며, 회수된 총 58부 중 30부에 대해 질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58부 중 30부를 선택한 것은 나머지 28부는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 정체감에 대한 문헌 등을 정리하였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깊이있게 성찰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보고서들이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일대기를 회고하며 서술한 내용이 1페이지 미만의 분량이거나, 자신의 출생과 성장 과정 등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은 배제된 채 단지 사실(fact)만을 나열한 보고서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 2. 자료 분석: 의미를 찾기 위한 탐색

본 논문의 분석 자료는 여자 대학생의 정체체감 형성 과정에 관한 자기 보고서이며 자료 분석 방법은 질적 내용 분석이다. 내용분석은 원래 커뮤니케이션 분석시 주로 단어와 주제의 발생 빈도를 알아보는 양적 분석의 형태로 시작하였지만(Berelson, 1952), 이제는 문화적인 산물이나 교과서, 영화, 잡지, 자서전, 일기, 편지 등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위와 같은 데이터를 면밀한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으로서 데이터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서 특정 주제가 등장하는 빈도나 백분율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성을 특정한 관점에 근거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메시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의미를 추론하는 방법이다(Abrahamson, 1983; Mason, 1990; 김영천, 1997).

이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에 일련의 질서, 체계,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지만(Marshall & Rossman, 1989), 양적 연구에서 이용되는 것과 같이 정확히 따라야 하는 규범적인 틀이나 규칙, 공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과정은 기계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는 점, 누구나 동의하는 가장 합당한 분석의 전략이 있을 수 없다는 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분석의 아이디어들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어떠한 방법의 표준화를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사항으로 수용되고 있다(김영천, 1997).

본 논문에서는 Miles와 Huberman(1984), 그리고 Dey(1993)이 제안한 3단계를 절충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단계는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료를 범주화하여 자료를 축소시키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범주화된 자료들을 비슷한 맥락끼리 통합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이 주제들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추상화(abstraction) 단계이다. 우선, 자기 보고서식 에세이 30부에 대해 읽고 철저히 읽고, 또 읽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에세이를 읽을 때마

다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과 잠재적인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메모를 하였고,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처음 읽었을 때는 흥미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발견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수십개의 그룹으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기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계에서 원자료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파악된 범주들에 포함된 내용들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제들의 윤곽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제들에 대한 추상화 작업을 거쳐 5가지의 중심 주제를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를 완성한 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읽어줌으로써 자신의 경험이 제대로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 III. 여자 대학생의 성 정체감 내면화 과정

### 1.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아 선호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은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아로서 자신의 출생이 환영을 받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성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자신의 형제 자매의 수와 서열에 따라 딸로서의 출생이 축복받지 못한 경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돈에 팔촌까지 전부 여자뿐이었던 집안에 엄마의 임신은 희망이자 바람이었는데 나의 탄생은 어른들께 심한 충격이었다. 그중 가장 실망한 것은 아버지였다. 내가 태어난지 2주가 돼야 얼굴을 보러 오셨다니 말이다. 집안 어른들은 냉담했다. 내 앞에서 저게 아들이었다면, 사내 아이였다면은 입버릇처럼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태어난지 2년 뒤 그렇게 바라던 남자 동생이 태어났다. 3대 독자, 그 이름에 걸맞게 동생에 대한 어른들의 사랑은 대단했다(1학년, 진현선<sup>1)</sup>)

내 위에는 언니와 오빠가 있다. 그래서 엄마는 나

1) 비밀보장을 위해 가명을 사용함

를 낳지 않으려고 했단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혹시 아들일지 모르니 낳으라고 해서 낳으셨단다. 내 위로 엄마는 두 번이나 자연 유산을 하셔서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유산을 하지 않았으면 아들이었을텐데 하며 아쉬워하셨다고 한다. 성장하면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너는 왜 나왔니 라는 주변의 말을 들으며 자랐다. 아마 둘째가 오빠가 아니라 언니였다면 너까지 딸이 됐구나 그랬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씁쓸하다(1학년, 나미화)

우리 집은 딸만 셋이고 난 막내다. 어렸을때부터 가족 상황을 말하게 되면 하나같이 아들이 없어서 부모님이 서운하시겠구나,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너까지 딸이 됐구나 하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3학년, 김순경)

이규태(1992)는 『한국 여성의 의식구조』란 책에서 남해안의 버리떼기 풍습(계집아이를 낳으면 버리는 비정한 풍습)을 소개하며 저주받고 태어난 한국 여성의 비정적 시련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지만, 딸만 있는 집에서 태어난 여대생들은 또 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도 있는 집에서 태어난 여대생들은 또 아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출생 자체가 그리 축복받지 못했었다고 한다. 이것은 명지대 여성가족생활 연구소(2000)의 조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대학생 877명(남성 361명, 여성 516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도 남학생의 90%가 많은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했지만, 여학생의 경우는 74.4%만이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남학생의 5.5%만이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다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22.3%가 축복받지 못했다고 대답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성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여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의 95.2%가 자신의 성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대학생의 73.8%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결과는 위와 같은 남아 선호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숙대신보, 1998).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출생 때의 단기적인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모나 다른 남자 형제와의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사이가 안좋아도 4대 독자인 나를 두고 이혼하지는 않으셨을거란 할머니의 말씀에(1학년, 정윤정), 아버지가 장남이고 조부모님께 가장 많이 효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 당신들 제사를 지내줄 수가 없어 재산상속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에(1학년, 유미영), 엄마가 아들을 낳지 못해 더 모진 시집살이를 했다는 이야기(2학년, 박미진) 등에서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하는 생각까지 하었다고 한다. 특히 남자 형제들과 차별을 받았던 기억은 자신의 성 정체성 뿐만 아니라 남성이라는 성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은 나에게 내가 남자였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었다. 부모님들의 오빠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나에게 남자에 대한 동경과 동시에 증오심 같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1학년, 남경화).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너까지 딸이 됐구나 하는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 딸만 있는 것은 창피하고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얘기들에 반발심이 생겨 남자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심어져 온 여자라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남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더욱 공격적이 되었던 것 같다(3학년, 김순경).

우리 아버지는 여자는 꽃같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난 꽃이 되기 싫었다. 너무나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반항감 때문인지 나는 더욱더 남성스럽게 변해갔다. 하지만 그래도 얻어지는 것은 없었다. 아무리 내가 남성다워져도 난 남자가 아니었고 또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남성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남성스러움을 포기해갈 무렵, 그래서 난 일종의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걸렸다. 어차피 남성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면 알보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난 남성을 좋아하면서도 매우 질투를 해 온 것이다(1학년, 강진희)

오빠나 남동생들과 자신이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난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라는 박탈감을 느끼거나 남자다워지려고 의식

적으로 노력하는 전략을 택하기도 하며, 타의적으로 아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아버지는 딸 셋 중 성격이 가장 남자같은 나를 데리고 놀면서 내가 아들이어야 했는데 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난 아들이 되었다. 생물학적인 남성이 아니라 집안에서 아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집안의 대를 잇고 나중에 부모님을 모실 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3학년, 김영미).

우리집은 딸만 둘이다.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내색은 안하시도 아들이 없는 것을 섭섭해하심을 안다. 그래서 절대로 아들이 없으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리라고 스스로에게 많이 다짐을 했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 하나가 어느 날 너는 내가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너무 남자다워질려고 노력하지 마라.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내가 평생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니. 아마 나는 꽤나 남자가 되고 싶었는지 모른다. 우리 집에 아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난 아들이어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어쩌면 남자를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또 다른 콤플렉스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난 노력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다. 이 세상은 아들이 있다고 행복해지고, 아들이 없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3학년, 성경혜)

그런데 한 가지 모순인 것은 그렇게 섭섭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 아들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즉 성역할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거부하는 태도를 지님과 동시에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들 선호 사상에 저항하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Kim, 1995).

만약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 동생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의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 화를 내셨다고 한다. 지금도 남동생만 감싸고 도신다. 그런데, 나 자신도 자식중에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 중에 아들이 없다면 누가 제사를 모실 것인가, 산소를 찾아갈 것인가, 대를 누가 이을 것인가, 내가 생각해도 집에서 남녀

차별 받는 것을 불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도 모순됨을 느낀다(1학년, 김나비).

지금까지 남아 선호에 대한 문제 의식은 주로 성비 불균형과 관련된 인구 문제나 낙태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남아 선호가 딸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처와 한을 남김과 동시에 딸로서의 경험이 여성으로 하여금 '아들'에 대한 욕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게끔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순덕(1991)의 조사에서 아들은 대를 잇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남성의 56.7%, 여성의 50.8%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전통적으로 딸들은 결혼과 더불어 출가의인으로 규정되고 남편과 그의 가족일에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이미정, 1998), 이것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태어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인 신세대 여대생들의 삶에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2. 이성에 눈을 뜨다: 여성성의 강화

한편, 이성과의 관계는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이 자신의 여성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계기가 된다. 어느 정도 이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서부터 외모나 옷차림, 말과 행동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상'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초등학교 5학년때 공주처럼 매일 예쁜 옷에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친구를 보고 남자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그때부터 선머슴같은 저도 엄마한테 치마 사달라고 조르고 그 아이처럼 압전해지려고 노력했다. 치마를 입어야 여성스러운 것처럼 느껴졌고 긴 생머리를 해야 남자한테 사랑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다(4학년, 조미숙).

어려서부터 유난히 덩치가 컸던 나는 동네 아이들과 놀면서 여장부 노릇을 했지만, 소꿉놀이를 할 때는 남편을 위해 밥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이나 멋진 왕자님을 기다리는 착하고 예쁜 여자 역

할을 하길 바랬다. 초등학교때는 난리치며 놀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으면 금세 얄짤해지고 최대한 여성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왜 그랬을까? 수줍어서 이기도 했지만 웬지 남자아이들은 얄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여자아이들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학년, 이민정).

중학교때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는데, 친구들이 무척 놀려댔다. 왜냐하면 남자애를 좋아하면서부터 행동이 변해갔다. 조심스러워지고 말도 조심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본래의 성은 어쩔 수 없나보다(1학년, 정수미).

어린 시절의 이같은 경험은 대학생인 현재의 이성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용환(1995)의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1학년 때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적응 문제, 2, 3학년 때는 이성 친구를 사귀는 문제, 4학년 때는 취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년 전체로 보았을 때 이성교제, 동성친구, 학업의 순으로 중요성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에게 학업 문제보다 이성교제의 문제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것은 여학생들의 경우 로맨스가 학업에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한 학업 부진이 다시 로맨스에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여기서 이성교제가 발단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부장적 편견 즉, 자신의 가치를 남성의 시각과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경향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자아를 직시하지 못하고 단지 남성의 사랑에만 의존하여 사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조윤정, 1996). 특히 현재의 여대생들은 졸업 후 직업인으로 성공하겠다는 강한 욕구를 가진 신세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조용환, 1995).

이러한 경험은 외모 콤플렉스라는 여성의 심리적 장애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정화(2학년)는 동화책을 읽으며 여자는 착하게 시키는 일 불평 안하고 참고 기다리면 왕자님이 날 데려갈 것이라는

환상을 꿈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 그건 여자가 약하게 그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 여자 주인공만큼 예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여대생에게 남녀 관계와 외모라는 또 다른 경험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나이 삼십이면 눈먼새도 돌아보지 않고, 여자 나이 사십이면 장승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자의 의미가 외모의 아름다움과 나이에 국한되는 것을 종종 본다. 나 또한 이런 콤플렉스가 심하다. 요즘에는 똥똥하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걸로 생각되어지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더욱더 옷이나 화장에 신경쓰고 몸매 관리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보다 길어지고 나 역시 다른 여자들과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4학년, 노영아).

친구 중에 가슴이 큰 친구와 아주 작은 친구가 있다. 가슴이 큰 친구는 크다고 목욕탕이며 수영장을 안가고 작은 친구는 작다고 안간다(4학년, 김경미).

결국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의 외모 콤플렉스는 자신의 몸을 관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상화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몸을 통제함으로써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 3.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만들어지다: 일상 생활속의 규제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이 가족내에서 남자 형제와 비교하여 느끼는 가장 큰 차별 중의 하나가 가사 노동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그 의무가 오로지 딸인 자신에게로만 부담지워지는 것이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설거지를 안해 놓으면 혼나지만, 3살 아래 남동생은 전혀 혼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생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4학년, 김진숙)

부모님께서서는 어렸을때부터 시집을 잘 가려면 혼자

서 이것쯤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한다. 하시면서 설거지도 시키시고 속옷도 빨아입게 하셨다. 시집을 잘 가려면 이라는 말속에서 여성이 시집을 잘 가려면 공부해서 똑똑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빨래, 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더 잘하는 현모양처가 좋은 결혼 상대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주입되고 있었던 것이다(1학년, 이현숙)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엄마가 나보고 상을 치우라고 했을 때, 오빠는 왜 안하냐고 했다가 혼이 난 기억, 슈퍼에 가서 반찬 좀 사오라고 하셨을 때 오빠 시키라고 했다가 남자가 어떻게 시장을 가느냐고 화를 내신 일, 모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2학년, 이은영).

가족, 특히 부모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을 때의 감정들을 '황당함' '당황스러움' '족쇄를 찬 기분'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고정화된 성역할을 수용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학년 장희경양은 부모님께 이러한 문제를 항의했더니 그럼 내가 제사 모시고, 대를 이어라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그때 저절로 아 이것은 남자가 할 일이고 저것은 여자가 할 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여대생들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90%), 결혼 후 자신이 전적으로 혹은 거의 가사노동을 전담하겠다는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을 볼 때(명지대 여성가족생활 연구소, 2000),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20대의 여대생들에게도 확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보수적인 가족관과 진보적인 남녀관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면서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슈퍼우먼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사춘기와 더불어 극대화된다. 특히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에 따른 제2차 성징의 출현은 여성은 여성답게 행동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더욱 가속시키는 계기가 된다.

생리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나에 대한 제약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오빠는 늦게 들어와도 괜찮고 심지어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도 괜찮은데, 나는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와야 하며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에 대해 말을 해야 한다. 왜 이래야만 하는지에 대해 여쭙어보면, 한결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넌 여자니까, 넌 딸이니까"이다(1학년, 김영아).

월경을 시작하면서 엄마는 진짜 여자가 되었구나, 네 몸은 이제 네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자이기 때문에 외박도 안되고 항상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은 여자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도록 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압적이고 귀찮은 것들로만 여겨졌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는 자랑스러운 몸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1학년, 윤미정).

부모님은 내가 저녁때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신다. 친구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만나는 것을 반대하신다. 나의 통금 시간은 일몰 시간이다. 7시만 되면 빨리 집에 들어오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짜증이 난다. 반항심에 일부러 더 늦게 들어가 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는다(3학년, 성경혜)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에게 제2차 성징은 일반적인 성숙이라는 의미보다는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에 대한 제약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여자가 옷차림이 그게 뭐니" "암전하게 앉아라" "여자는 술먹으면 안된다" "여자가 왜 그렇게 칠칠맞냐" "여자가 사내처럼 웃냐" 등의 언어들 이 2차 성징 이후 급격히 증가하며 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여성성을 강요받으며 여성다운 몸가짐에 충실하게 만든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약은 귀가 시간, 여행, 외박에 대한 규제와 순결 의식의 강조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월경을 임신 능력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통념 탓으로 보인다. 특히 여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못쓴다며 순결을 설교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순결을 목숨과도 바꾼다는 부모님 세대의 주장에 은근히 반발도 해보지만 순결을 잃으면 여자로서의 인생도 끝이다라는 두려움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또한 월경은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와 성 정체감의 재조직화를 위한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Woods, 1995),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월경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자연

스러운 현상임에는 틀림없지만, 여성의 인생에서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은 월경이라는 사건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남성(남자 형제)과 차별된 규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 나아가 남자들은 월경을 하지 않아서 좋겠다는 또 다른 부러움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경은·이성은, 2001).

**4. 구속이자 도피처로서의 성역할 이데올로기: 학습된 무기력**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은 전통적 여성관과 현대적 여성관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이미 그들의 내면 세계 깊숙이 침전되어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적 의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면 우와 대단하다 라는 말보다는 저 여자 되게 억세다 라는 말들을 듣지 않을까 두렵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여성의 운명이라는 생각에 까지 미치게 되었고, 의욕을 상실하고, 나 자신을 가꾸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나 자신을 묶어 놓는 결과를 초래했다(3학년, 이민정).

내가 생각해도 집에서 남녀차별 받는 것을 불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도 모순됨을 느낀다.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강한 여성이 되고 싶다. 동시에 남자에게 사랑받고 보호받는 여성이 되고 싶다(1학년, 김나비).

나는 보수적인 집에서 자라, 그 반발로 나름대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집안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나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남자를 보조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은 하면서 나의 머릿속에는 이런 남자상, 여자상은 박혀있는 듯 하다. 여자는 남자 뒷바라지를 잘해야하고, 남자가 우선이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되고, 여자는 몸을 조심하게 해야하고 등등 나도 이런 생각과 크게 다를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1학년, 김정희).

4학년에 되고, 대학원을 가고 싶어 부모님과 이야기기를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여자는 학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날 수 있는 남자는 점점 좁아진다고 하시며 대학원 진학을 반대하셨다. 물론 남자 때문은 아니지만 나도 쉽게 포기하고 말았다(4학년, 서홍미).

여자로 태어나 불행감을 느낀때는 성차별이란 단어에 공감을 할 때이고,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때라는 모순이 내 안에 있음을 느낀다(2학년, 문미라)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 반대하지만 전통적 성역할을 위배하는 것은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반면, 전통적 성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안정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존 사회 구조 내에서 통상적 성역할을 수용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고 더 나아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길임을 간파한다. 그러나 여성의 성역할을 수용하는 것은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억압당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이들에게 구속이자 현실적 어려움을 회피하는 도피처가 되는 셈이다.

Pipher(1994)에 따르면 사춘기 전까지 소녀들은 자신의 성역할에 구애됨이 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지만, 청년기에는 모든 것에 흥미를 잃는다고 한다. Pipher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자율적인 자아와 여성이 되고자 하는 욕구, 즉 인간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사명 사이의 갈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진실한 자아를 찾는 것과 여성스럽다는 것에 대한 문화적 규범 사이에서의 커다란 차이가 여성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준다. 결국 이러한 이중적 사고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대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수용하며 불가능한 것을 구하려고 함으로써 야기되는 긴장을 피하려 한다. 즉 이들이 성정체감을 형성하는데에는 성역할 이데올로기 같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거대한 사회 구조 자체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 어떻

게 구현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 피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판단한다. 개인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지만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성역할을 수용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한다.

이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어려서는 한번도 남자가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고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럽다. 그래도 난 여자다. 이사회를 살아가면서 성역할의 고정어 울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4학년, 조미숙)

의식적으로는 정형화된 여성의 모습에 반기를 들면서 행동에서는 점점 닮아가는 딜레마에 빠진다. 남녀평등을 외치다가도 여성이라는 것을 교묘히 이용하여 편리하게 살아가는...어린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성관념에다가 그 성관념이 지닌 억압으로 인해 나의 성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한편, 여성이라는 그룹이 비하되는 것에 반발하는 단순한 저항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한 여성이 자살하거나 숨어지내는 것을 보면 바보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만약 내가 비슷한 일을 당하면 나 역시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부인하고 싶지만 난 기존의 성역할에 나도 모르게 이미 길들여져 버린 것이다. 미래의 꿈이 현모양처라는 친구를 보며 한심해하던 내가 그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다르고, 그 다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자신이 없다(4학년, 김진숙).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무의식적인 수용과 그에 대한 반발의 과정이다. 문제는 그 반발이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대안을 지니지 못하고 감정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손해본다고 느낄때에만 반발하며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도피적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2학년, 이정화)

규범적인 가치 기준에서는 남녀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상 생활에서는 차별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상미(1997)의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새로운 성역할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여대생들의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

## 5. 어머니는 여자보다 행복하다: 보상으로서의 모성

연구에 참가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구체적인 일상 생활의 경험 속에서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생동감있게 여성임을 자부하는 부분이 바로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직접 어머니됨을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어머니됨을 여성 정체성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된 것은 여성만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머니는 여자보다 강하다라는 말도 마음에 와 닿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1학년, 민숙경).

아이를 낳는다는 일은 여자로서 가장 자부심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아이를 보면 나도 저런 아이를 키우면 살맛 나겠다라는 생각도 든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아마 여자들은 엄마가 되어서 여자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1학년, 김영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여성만이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여성만이 그 아기를 기를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1학년, 심진아).

내가 여자인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아이를 낳는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엄마의 삶을 보면서 저런 삶이 정말 아름다운 것일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엄

마는 1년전쯤 돌아가셨다. 정말 희생과 인내와 고생, 아픔 등으로 이루어진 삶이다. 그 인생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사셨을까 슬퍼진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았으며 자식을 낳고 사랑으로 기르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사셨다는 점에서 엄마같은 그런 여자로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여자라는게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여자, 신체적으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운명지어진 축복받은 존재가 엄마라고 생각한다(4학년, 김진숙).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며 이것은 여성의 삶으로서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경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은 모성을 본능적 사랑으로 인식하고, 여성의 삶에서 '여성의 생물학(female biology)'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정하며, 모성을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생물학적 경험을 통해 발휘되는 여성 고유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듯 하다(신경아, 1997). 특히 이러한 모성에 대한 가치 부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 듯 하다. 즉,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어머니됨에 대한 재인식과 어머니의 삶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여성, 곧 어머니로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이미지인 '아줌마'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서도 여전히 강한 여성 정체성의 준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딸로서 받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모성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에 대한 혼란이나 분노가 결국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나 모성 이데올로기로 귀착하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결국 어머니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직접적 기회비용보다 남녀 관계에 대한 여성의 가치관과 사회에서 규정한 여성의 역할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 비록 모성의 의미가 삶의 다양한 가능성이 라는 관점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선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할지라도, 사

회적 조건은 그러한 삶의 지평 확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역할 규범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모성이 여성의 삶에서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제약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영주, 1996).

#### IV. 논의

인간이 항상 여자 혹은 남자라는 범주를 지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성별과 관련된 범주는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 우위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며 그 결과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내면화시켜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정, 학교, 사회가 고정화된 성역할과 그에 부수되는 성차별적 관념을 전수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데 주력하였으며, 특히 가족학 분야에서는 성역할의 형성에 있어 부모와 가족의 배경 변인의 영향력과 성역할 태도 및 성역할 정체감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취급하여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방식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주체적 존재로서 외부로부터의 성별화 과정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개인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성역할을 어떻게 수용하고 저항하는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은 가족내 성별 분업, 양육 방식과 책임, 심리적 지향 등의 측면에서 성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부장적 가족, 여성성 고정관념,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등의 이념적 경계들 사이에서 의문을 가지고 혼란스러워 하며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나 기대를 예측, 수용, 시험, 또는 저항하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갈등이 여대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정

체성, 즉 양가적인 정체성을 지니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성역할 태도나 정체감이 가족관계, 특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예를 들면 남편이 평등적, 부인이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집단이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낸 결과(윤경자, 1997) 혹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고선주(1997)의 연구에서 부인보다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 적응에 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사랑과 남녀관계, 가족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젠더와 관련된 것임을 고려해볼 때, 청년기 여대생이 자신의 성 정체감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미래 취업이나 결혼생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여대생들의 경험은 여성들이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고 자신의 신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은 남성/여성으로서의 범주로 자신을 정의하기보다는 자신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성 정체감, 성역할 태도 및 성역할 정체감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취급하여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 주를 이루어 왔음을 볼 때, 본 연구는 실제 여대생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그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자료가 여대생들이 서술한 에세이라는 점에서 심층면접과 달리 이들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탐구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수업 중의 과제로 부과된 보고서로서 참가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였을까에 대한 회의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아 있다.

성 정체감 혹은 젠더와 관련된 문제는 이론과 실천의 충돌이 크고, 그것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모순과 갈등을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향한 첫걸음일 것이다. 앞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성 정체감 형성 과정, 그리고 남녀가 성 역할 규범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녀간 이해와 소통의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고선주(1997). 취업부부의 부모기 전이 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서역할 태도와 결혼 적응. *대안가정학회지*, 35(5), 17-32.
-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 135-170.
- 김원홍, 이인숙 권희완(1999). *오늘의 여성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지경(2002). 성차별 경험이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영주(1996).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71-83.
- 명지대 여성가족생활연구소(2000). 성차별 의식구조의 형성 배경과 표현 양태: 한국 중산층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생활연구보고서*
- 박경은, 이성은(2001).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3), 359-372.
- 박선영, 정옥분(1989). 청년기 자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대안가정학회지*, 27(4), 139-151.
- 박홍주(1998).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여성과 사회*, 9, 113-120
- 숙대신보(1998). 서울지역 대학생의 성역할 의식조사. ([http://sookmyung.ac.kr/~shinbosa/971/971\\_j\\_1.html](http://sookmyung.ac.kr/~shinbosa/971/971_j_1.html))
- 신경아(1997). 한국 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미옥(1991). 여자 고등학생들의 성역할 인식의 배경과 수용, 거부 과정.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안순덕(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윤경자(1997).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6.
- 윤진(1981). 남녀차이에 대한 심리학적 한고찰: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15, 21-35.
- 윤택림(1996).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

- 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 이규태(1992). *한국여성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 문화사.
- 이미정(1998). 가족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 투자. *한국사회학*, 32, 63-97.
- 이선미, 김경신(1996).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태도: 모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1), 49-65.
- 이선옥(1997). 신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부상. *여성과 사회*, 8, 211-221.
- 이 숙(1986).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역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4(4), 199-208.
- 이영자(2000).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여성과 남성. 서울: 나남.
- 이주옥(1996). 어머니의 성역할 정체감과 취학전 아동의 성고정관념 및 동료 수용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5(2), 14-28.
- 이혜성(1989). 심리 여성학: 한국인의 여성에 대한 태도 연구(pp. 196-232). *여성학 영역별 연구*. 서울: 이대 출판부
- 조옥라, 신경아(2000). 성평등학에서의 남녀관점의 차이와 융합가능성에 대한 연구: 여성학 수업 수강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조용환(1995). 대학 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여대생들의 홀로서기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3(5), 163-191.
- 조윤정(1996).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성경험을 통한 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상미(1997). 한국 여대생의 정체성 발달: 독립적 자아와 합류적 자아의 갈등과 변화.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Anyon, J. (1983). Intersections of gender and class: Accommodation and resistance by working class and affluent females to contradictory sex-role ideologies. S. Walker & L. Barton(Eds.), *Gender, class, and education*. Lewes: Falmer Press.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Glencoe, IL: Free Press.
- Dey, I. (1993). *Qualitative data analysis*. London: Routledge.
- Giddens, A. (1991).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y*. 배은경 황정미 역,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서울: 새물결.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Kaplan, A. G., & Sedney, M. (1980). *Psychology of sex roles: An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Kim, E. S. (1995). Female gender subjectivity constructed by "son-birth": Need for feminism?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 33-57.
- Marshall, C., & Rossman, G. B.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Mason, J. (1990).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England: Sage.
- Miles, S., & Huberman, A. (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 Mason, K. O., & Bumpass, L. L. (1974). U. S. women's sex role ideologies, 197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5), 1212-1219.
- Pipher, M. (1994). *Reviving ophelia: Saving the selves of adolescent girls*. New York: Ballantine Books.
- Sampson, S. (1982). Egalitarian ideology and the education of girls. *The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20(1), 10-20.
- Tavris, C. (1992). *The mismeasure of woman*. New York: Simon & Schuster.
- Woods, N, F. (1995). Young women's health. C. I. Forgel, & N. F. Woods(Eds.), *Women's health care*. Sage.

(2003년 2월 20일 접수, 2003년 9월 15일 채택)